



We oppose Israel's genocide and support th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Protests, marches, lectures, street campaigns and fundraising for Palestinian refugees are being organized to expand solidarity.

On October 11, 2023, the first protest and march in South Korea was held to condemn Israeli aggression and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Palestinian resistance. This led to the formation of a solidarity group composed of Palestinians, different migrants in South Korea including Middle Easterners and North Africans such as Egyptian Community and Korean civil society organisations(currently 45). From the first protest in Seoul, solidarity activities have spread to Busan, Daegu, Ulsan, Incheon, Suwon, Wonju, and more.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have turned their campuses into centers of awareness and commitment by organizing lectures, art exhibitions, and debates — including the first university encampment in South Korea.

Professors, teachers and students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workers in labor unions have been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in their own spaces.

Their contributions and energy are driving the movement. We stand against racism that denies Palestinians' right to life, and we oppose both Islamophobia and antisemitism.

Our solidarity will continue until the occupation and genocide in Palestine ends.

Get involved

- Attend/volunteer at the Seoul weekly protest and local protests.
- Check out the website & follow us on SNS!

Fundraising Shinhan Bank 110-173-517650 [최영준]

Fund will be used for hosting and promoting Palestine solidarity protests.



← Website



We oppose Israel's genocide and support th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Protests, marches, lectures, street campaigns and fundraising for Palestinian refugees are being organized to expand solidarity.

On October 11, 2023, the first protest and march in South Korea was held to condemn Israeli aggression and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Palestinian resistance. This led to the formation of a solidarity group composed of Palestinians, different migrants in South Korea including Middle Easterners and North Africans such as Egyptian Community and Korean civil society organisations(currently 45). From the first protest in Seoul, solidarity activities have spread to Busan, Daegu, Ulsan, Incheon, Suwon, Wonju, and more.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have turned their campuses into centers of awareness and commitment by organizing lectures, art exhibitions, and debates — including the first university encampment in South Korea.

Professors, teachers and students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workers in labor unions have been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in their own spaces.

Their contributions and energy are driving the movement. We stand against racism that denies Palestinians' right to life, and we oppose both Islamophobia and antisemitism.

Our solidarity will continue until the occupation and genocide in Palestine ends.

Get invol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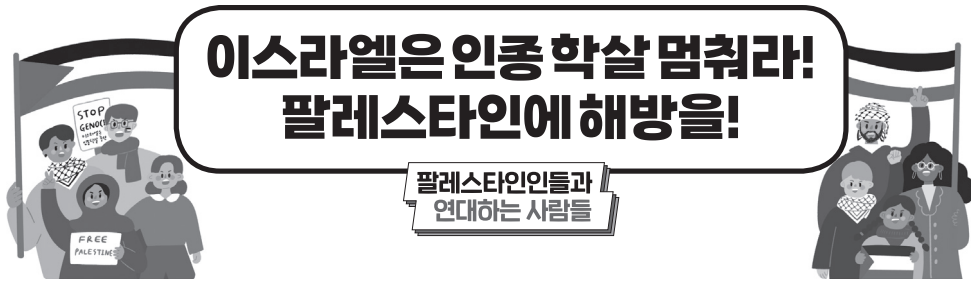
- Attend/volunteer at the Seoul weekly protest and local protests.
- Check out the website & follow us on SNS!

Fundraising Shinhan Bank 110-173-517650 [최영준]

Fund will be used for hosting and promoting Palestine solidarity protests.



← Website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연대체입니다. 이를 위해 집회와 행진, 강연과 거리 캠페인,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모금 등 연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연대하는 한국의 첫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집회를 계기로 연대체가 결성되어,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한국 시민·사회 단체(현재 45곳), 이집트인 커뮤니티를 포함해 중동·북아프리카인들, 여러 이주 배경의 참가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첫 시위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울산, 인천, 수원, 원주 등으로 연대 활동이 확산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한국의 대학생들은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를 결성하고, 캠퍼스 농성, 전시회, 강연회 등을 열면서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진실을 알리는 일에 열성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을 비롯해 대학의 교·강사를,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과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도 자신의 공간에서 다양한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진 연대의 씨앗들이 차츰 싹을 틔워 곳곳에서 연대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에 맞서고 이슬람 혐오, 유대인 혐오에 반대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의 점령과 학살의 비극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연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매주 주말에 열리는 서울 집회와 지역 집회에 참가/자원봉사
- 웹사이트와 SNS에서 집회, 성명, 강연회 등 다양한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홍보 등에 사용됩니다.



← 웹사이트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연대체입니다. 이를 위해 집회와 행진, 강연과 거리 캠페인,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모금 등 연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연대하는 한국의 첫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집회를 계기로 연대체가 결성되어,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한국 시민·사회 단체(현재 45곳), 이집트인 커뮤니티를 포함해 중동·북아프리카인들, 여러 이주 배경의 참가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첫 시위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울산, 인천, 수원, 원주 등으로 연대 활동이 확산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한국의 대학생들은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를 결성하고, 캠퍼스 농성, 전시회, 강연회 등을 열면서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진실을 알리는 일에 열성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을 비롯해 대학의 교·강사를,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과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도 자신의 공간에서 다양한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진 연대의 씨앗들이 차츰 싹을 틔워 곳곳에서 연대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에 맞서고 이슬람 혐오, 유대인 혐오에 반대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의 점령과 학살의 비극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연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매주 주말에 열리는 서울 집회와 지역 집회에 참가/자원봉사
- 웹사이트와 SNS에서 집회, 성명, 강연회 등 다양한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홍보 등에 사용됩니다.



← 웹사이트